

미국 대학들의 글쓰기 프로그램 연구

2009. 05. 20. (수) | 김명환(서울대) 조수경 김은형 박찬호

I. 서론: 미국 대학들의 글쓰기 교육의 역사.

근래에 그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어 가고 있는 글쓰기 교육, 특히 영어 글쓰기 교육은 18세기 영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Miller, 1997). 18세기 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된 고전 문학들을 주로 다루었던 반면, 종교적인 이유로 이러한 학교에 입학할 거부당했던 영국 비국교도들은 좀 더 실질적인 학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이들 대학에서 라틴어나 그리스의 고전 문학 보다는 영어를 배울 실질적인 필요성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국교도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영어, 특히 글쓰기 교육은 이주민들과 함께 18세기 미국으로 전파되었다. 이에 따라 사고와 토론 중심의 수업들은 점차 글쓰기 규칙이나 예들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1950년대 중반까지도 지배적인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재향 군인들 및 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대학 신입생의 수가 대거 증가하게 되었다 (Nystrand, 1993; 2003). 이렇게 학생 수가 증가하자 이들이 쓰는 글쓰기의 양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대학가에서는 이들의 글쓰기 실력이 이전의 대학생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스트릭랜드(2001)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증가에 따른 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글쓰기 교육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누가 이들을 가르치고 담당하며, 또 강사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등의 여러 난제가 걸려있었다.

1939년경에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 대해 주로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첫 번째는 영문과 내에서 sub-Freshmen writing courses를 개설해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당시 위스콘신대학이나 일리노이대학 등이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두 번째는 Composition and Rhetoric과 같은 독립적인 과를 신설하여 글쓰기 강좌를 완전 독립시키는 방안이었는데 이후 이 두 번째 방법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스트릭랜드(2001)는 이러한 글쓰기 수업의 분리가 노동의 분화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러 분리가 자본주의적 효율성과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문학과 글쓰기의 분리가 문학은 중요한 개념, 글쓰기는 단순한 기술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반함으로써 글쓰기가 기본적인 기계적이며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글쓰기 교육과 문학 교육의 분리는 석사나 박사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내는데, 그 분리는 다음의 세 가지 양상을 띤다. 첫째, 글쓰기 프로그램이나 학과가 영문학과와 서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경우로서,

시라큐즈대학(Syracuse University)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두 번째는 완전히 분리되기보다는 영문학과 내에 문학과 글쓰기 프로그램이 서로 독립된 분야로서 공존하는 형태이다. 이는 현재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서, 1986년경에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대학들의 수가 46개였던 반면 1994년경에는 무려 70개의 대학으로 증가했다. 이들 대학에서는 자신들이 Composition and Rhetoric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Composition and Rhetoric은 1950년대 이후 박사들이 대량 배출되면서, 70~80년대 공급 증가로 인한 취업 시장의 악화를 거쳐, 90년대 들어서는 각 대학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면서 가장 촉망받는 분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카네기멜론대학(Carnegie Mellon)이나 일리노이주립대(Illinois State University), 피츠버그대학(University of Pittsburgh), 뉴욕주립대 알바니(SUNY at Albany) 등은 글쓰기와 문학 교육의 분리보다는 글쓰기와 문학을 융합시킨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발전한 미국 대학들의 글쓰기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론에서 미국의 유수 사립대학과 주립대학들의 글쓰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대학별 사례 (미국 8개 대학의 학부 글쓰기 프로그램 분석)

2절에서는 4개의 사립대학(Stanfo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MIT, Princeton University)과 3개의 주립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그리고 1개의 인문교양대학(Dartmouth College)의 글쓰기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각 대학이 어떤 과목을 학부 글쓰기 필수 학점 이수를 위해 개설하고 있는지, 이 글쓰기 필수 과목의 수업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수업들이 어떤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과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강사진이 이 글쓰기 필수 강좌를 가르치는지 살펴본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현재 미국 대학들이 글쓰기 수업을 통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과 그 강좌의 공통적인 변화 추세를 짚어보려 한다.

조사된 미국 대학들의 글쓰기 필수 과정은 기본적인 일반교양 글쓰기 과목과 전공 분야에서의 글쓰기 과목의 필수 여부에 따라 대학별로 차이를 보인다. 프린스턴과 하버드는 일반교양 글쓰기 과목 하나를 한 학기 동안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위스콘신 및 미시건, 버클리, 다트머스는 기본적인 일반교양 글쓰기 과목에 더하여 전공 글쓰기 과목도 필수로 한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의 경우 Communication A에서는 기본적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가르치고, Communication B에서는 각 전공 과목에서의 글쓰기 방법을 가르쳐서 보통 2년에 걸쳐 이 두 필수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미시건의 경우도 Writing Practicum에서 기초적인 글쓰기 기술을, First-Year Writing Requirement에서 각 전공 분야의 글쓰기 방법을 가르쳐서, 총 1년간 학생들이 글쓰기 필수 강좌를 이수하도록 한다.

스탠포드와 MIT는 이보다 더 야심차게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두 학교 모두 일반교양 글쓰기와 전공 글쓰기로 글쓰기 필수 과목을 구성하면서, 스탠포드는 일반교양 글쓰기 파트만 둘로 나누어 총 3개의 필수 과목을 부과하고, MIT는 일반교양 글쓰기뿐 아니라 전공 글쓰기까지 둘로 나누어 총 4개의 필수 과목을 부과한다. 즉, 스탠포드에서는 3개의 글쓰기 과목(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 1, 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 2, Writing in Major)을 필수로 부과하여 이를 3년에 걸쳐 이수하게 하고, MIT는 4 과목(두 개의 Communication Intensive in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와 두 개의 Communication Intensive in the Major)을 통상 4년에 걸쳐 이수하게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스탠포드는 교양 글쓰기 첫 번째 과정으로 4학점 강좌인 PWR 1을 개설하여 기본 글쓰기를 가르치고, 교양 글쓰기 두 번째 과정인 4학점 PWR 2를 개설하여 연구에 기반한 주장을 전개하는 글을 쓰고 이를 구술로 발표하는 과정까지 가르친다. 그리고서 보통 3, 4학년 때엔 세 번째 단계인 3학점짜리 전공 글쓰기 강좌(Writing in the Major)를 수강하게 한다. MIT의 경우엔 이보다 좀 더 전공 글쓰기 강좌에 집중하는데, 즉, 1, 2학년 때에는 보통 글쓰기 수업, 혹은 인문 사회 과학 수업으로 개설된 CI-H 두 과목을 이수하여 글쓰기와 구술 발표법을 배우게 하고, 3, 4학년 때에는 특정 전공 분야에 관련된 글쓰기와 구술 발표법을 습득하게 하는 CI-M 과목 두 개를 수강하게 한다. 이와 같은 글쓰기 필수 과목의 종류와 수의 차이는 글쓰기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본적인 일반교양 글쓰기를 1학기만 필수로 할 경우엔 프린스턴의 Writing Seminar 수업에서 보듯, 학생들이 research paper의 기본 과정, 즉 학구적인 호기심과 질문, 독창적인 주장, 구조화된 아이디어, 다양한 자료의 이용과 통합, 표절 방지법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이런 원리에 기반한 글을 정기적으로 써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반면 다트머스의 Writing 2-3 수업에서처럼 1년에 걸쳐 2 과목으로 기본적인 일반교양 글쓰기 과목을 개설한 경우엔 글을 쓰기 위한 철저한 리서치 과정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즉 Writing 2에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논설문(argumentative essays)을 쓰는 법을 익힌 다음, Writing 3에선 비판적 읽기, 철저한 연구, 효과적인 글쓰기라는 목표 아래, annotated bibliography 쓰기, 잠정적인 초록(tentative abstract) 작성, 주제와 아웃라인 잡기, 초고(pre-drafts and drafts) 쓰기, 수정, research paper 제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며 연구에 기초를 둔 주장을 전개하는 글쓰기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보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개인 튜터(TA 혹은 Writing Advisor)를 붙여 글쓰기 개별 지도를 하기도 한다.

MIT와 스탠포드처럼 글쓰기 교육이 강화된 경우에는 일반교양 글쓰기 과목에서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에도 많은 주안점을 둔다. 스탠포드의 경우, 1 단계 필수인 PWR 1에서는 글쓰기만 가르치지만, PWR 2에서는 글쓰기에 더하여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구술 발표(oral and multimedia presentation)가 수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PWR 1에서는 연구에 기반한 주장(research-based argument)을 발전시키는 글을 쓰는 데 수업의 초점을 두고 한 학기에 세 개의 에세이(총 25-30 페이지)를 과제로 부과하는 반면, PWR 2에서는 연구에 기반한 주장을 전개하는 글쓰기뿐 아니라 구술 발표에도 초점을 두어, 연구제안서(2-4 페이지, 5분 발표 분량), 발표문(8-10 페이지, 전형적인 학술 글쓰기), 미디어를 이용한 발표(10분 분량, 6-8 페이지 정도의 스크립트), 연구 평가(발표 전략과 연구 내용의 평가, 3-5분 분량, 2-3 페이지 정도의 스크립트)와 같은 일련의 구술 발표와 관련된 글쓰기 과정이 수업 과제로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MIT에서도 구술 발표가 글쓰기 수업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MIT의 일반교양 글쓰기 과목인 CI-H에서는 일반 설명문 쓰기과 말하기(general expository writing and speaking)에 중점을 두어 3-5개 정도의 에세이(총 20 페이지)와 함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수업의 기본 과제로 부과한다. 하지만 전공 글쓰기 과목인 CI-M에서는 oral, visual communication을 이보다 더욱 중요히 여겨, 전공 담론과 관련된 글쓰기와 말하기를 잘 결합시킨 과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 프로그램의 강사진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글쓰기 전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여기에 전임 교원을 고용하여 글쓰기 필수 강좌를 가르치고 있다. 전임 교원은 보통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한 학기당 2 과목을 필수로 가르치며 계약적이다(하버드의 경우 5년간 재계약 가능). 이들 전임 교원은 주로 일반교양 글쓰기를 담당하고, 또 어떤 경우엔 전공 글쓰기까지 담당한다. 또한 스탠포드, 프린스턴, 위스콘신은 포함한 상당수의 학교에서 대학원생이 박사과정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일반교양 글쓰기 강좌를 맡아 가르치기도 한다. 하지만 다트머스의 경우에 TA들은 철저하게 강좌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면서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을 담당한다. 이 외에 교수나 행정 직원, teaching fellows가 일반교양 글쓰기 강좌를 가르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전공 글쓰기 필수 강좌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해당 전공 학과의 교수진이 맡고 있다. MIT의 경우, CI-H(일반교양 글쓰기)수업에서는 WAC(Writing Across the Curriculum)프로그램에서 Writing advisor를 제공하여 학생 글쓰기에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과 개인 면담을 하도록 하는 반면, CI-M(전공 글쓰기)수업의 경우엔 전공 교수의 주도 아래 WAC 전임 교원이 전공 교수와 연계하여 강의계획서를 짜고, 워크숍을 열기도 하며, 학생들의 초본을 수정해 주고, 학생 구술 발표를 녹음하기도 하는 등 전공 교수의 적극적인 보조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2 절에서는 미국 8 개 대학의 글쓰기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나타난 각 대학의 글쓰기 필수 과목의 조직, 수업 목표와 내용, 감사전의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대학들이 학부생들의 글쓰기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이 대학들의 글쓰기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 추세를 보인다. 첫째, 이들은 점차 일반교양 글쓰기 과목뿐 아니라 전공 글쓰기 과목까지 필수로 부과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담론을 생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장려하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 각 대학의 필수 글쓰기 과목은 점차 “말하기”도 수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면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뿐 아니라 구술 발표 능력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 필수 글쓰기 과목에서 정의하는 “말하기” 요소가 먼저 학생들의 능숙한 “글쓰기”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 글쓰기 필수 과목은 철저한 연구와 분석에 기반한 주장을 전개한 “글”을 능숙하게 발표하는 것을 “말하기”로 정의하며, 점차 이 요소를 글쓰기 과목의 중요 부분으로 고려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 대학의 글쓰기 필수 과목들은 학생들이 일반교양 담론을 넘어서 전공 담론까지 능숙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또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글을 쓰는 것을 넘어서 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구술로 발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교육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III. 미국 대학의 글쓰기 프로그램 현황

3 절에서는 위의 8 개 대학별 사례 조사에서 드러난 중점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 내의 다른 대학들의 상황도 알아보기 위해 설문 방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각 전공별 글쓰기 이수 과목의 종류와 수, 글쓰기 과목과 전공과의 연계성, 글쓰기 과목 감사전 구성과 그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향후 글쓰기 프로그램이 나아가길 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고(Appendix 참조), 미국 내 대학에서 글쓰기를 담당하는 강사나 교수, 원장들의 모임인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과 Writing Program Administrators 의 listserv 로 보내져 총 43 명이 참여했다.

우선, 각 전공별로 이수해야 할 글쓰기 과목의 수는 표 1 에서와 같이 전공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대학에서 2 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 대학별로 이수해야 할 글쓰기 과목 수가 4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3 과목 이상의 항목을 합하고 “Not Applicable or Don't Know” 항목을 제외한 분할표(contingency table)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chi^2=8.63$, $df=12$, $p=.73$). 즉 이수해야 할 글쓰기 과목 수에 대한 단과 대학별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 과목을 글쓰기 필수 과목으로 정해 놓은 학교가 많았지만, 놀랍게도 3 과목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대학들의 수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를 택한 답변자들의 수도 많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설문지에 명기된 전공 외에 다른 전공(간호대, 약대, 의대, 식품영양, 의류 등) 학생들도 필수 글쓰기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Number	1	2	3	4	or more	Not Applicable or Don't Know
Humanities	22%	54%	17%	5%	0%	2%
Natural sciences	21%	61%	8%	3%	0%	8%
Social sciences	21%	56%	15%	0%	0%	8%
Engineering	16%	42%	5%	0%	0%	37%
Education	11%	46%	19%	0%	0%	24%
Business	13%	55%	11%	0%	0%	21%
Other	3%	47%	12%	0%	0%	38%

표 1. 전공별 글쓰기 과목의 수

이와 같은 글쓰기 과목들을 담당하는 전담 학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66%(41 명 중 27 명)의 답변자가 영문학과(English Department), 글쓰기 프로그램이나 학과(Composition and Rhetoric), 혹은 Writing Center 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각 전공 분야에서만 독자적으로 글쓰기 과목을 개설한 경우는 단 건도 없었지만, 영문학과 혹은 글쓰기 프로그램이나 학과, 아니면 Writing Center 등과 같은 글쓰기 담당 분야와 각 전공 분야에 걸쳐서 글쓰기 과목을 들여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32%(41 명 중 13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교양 글쓰기가 자기 전공 분야의 글쓰기 과목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이미 대학별 사례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위스콘신 대학교나 미시건 대학교, 다트머스 등은 2 개의 교양 필수 글쓰기 과목 중 한 과목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제공되는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게 하고 있으며, 버클리의 경우도 2 개의 교양 필수 글쓰기 과목 중 한 과목은 Writing Center

이외에 다른 학과에서 제공하는 글쓰기 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 프로그램을 강화한 스탠포드와 MIT는 그만큼 전공 분야에서의 글쓰기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에서는 1, 2학년 때 두 개의 필수 글쓰기 과목(PWR1와 PWR2)을 이수한 뒤에, 3학년 때에는 WIM(Writing in Major)라고 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글쓰기 한 과목을 듣게 하고 있다. MIT의 경우도 학생들로 하여금 1, 2학년 때에는 CI-H라는 교양 글쓰기 수업을, 3, 4학년 때에는 CI-M이라는 각자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글쓰기와 구술 발표법을 듣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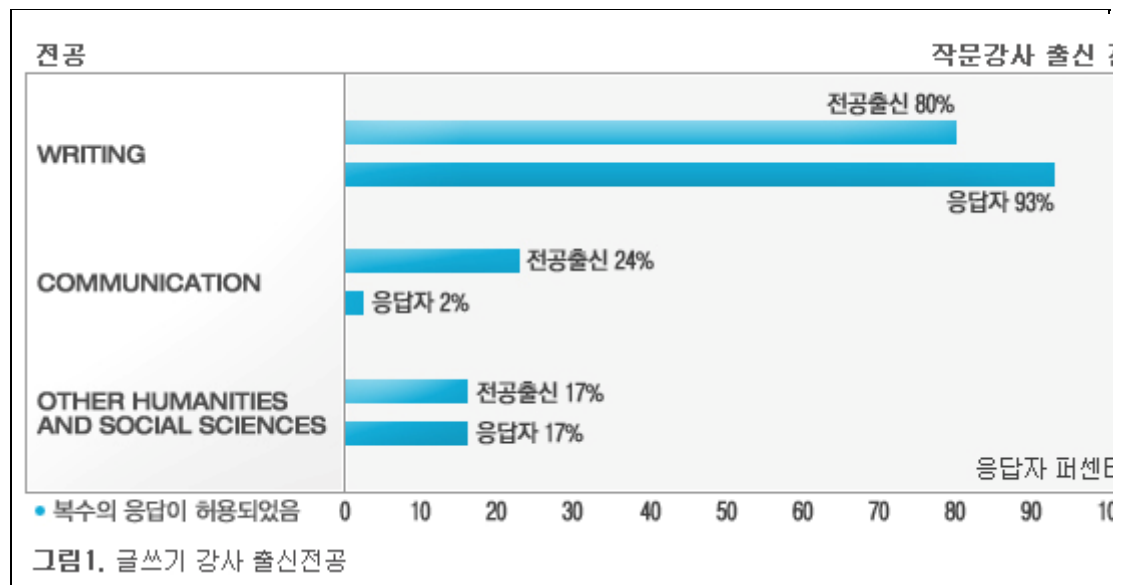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대학별 글쓰기 수업에서 자랑할 만한 점을 묻는 단답형 질문에서도 글쓰기와 전공과의 연계성이 대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25명의 답변 중 잘 모르겠다고 답한 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양 글쓰기 이외에 전공 관련 글쓰기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영이나 생물학과 같은 각각의 전공 분야에서 그 전공 분야를 위한 고급 작문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Each discipline (business, biology, etc.) is supposed to offer an advanced writing course for that discipline.

우리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집중 글쓰기 과목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다양한 글쓰기 과목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들이 작문 과목은 아니다. We have writing-intensive courses required for each student within that student's major; therefore, there are many different writing courses offered within each major. However, these are not composition courses.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전공 분야에서 제공되는 글쓰기 과목을 듣고 4학년이 되면 그 글쓰기 과제들을 종합해서 제출해야 한다. Students are required to complete a one semester writing course in their major field of study and submit a senior portfolio.

글쓰기 과목 강사진의 출신 전공을 묻는 질문은 응답자들이 글쓰기 프로그램 및 학과(Composition and Rhetoric), 영어영문학(English), 신문방송학(Communication), 외국어(French, German, East Asian Languages), 인문 사회계열(history, sociology) 및 기타 학과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그래프에서 각각의 분야에 표시된 퍼센티지는 총 응답자 중 몇 명이 그 항목을 선택했는지를 나타낸다. 아래에서 보듯 영어영문학과가 응답자의 93%로 가장 높으며,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강사들의 수도 80%로 비슷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신문방송학과 출신들이 24%로 많았다. 이는 위의 대학별 사례 연구에서 밝힌 대부분의 학교들(스탠포드, MIT, 위스콘신, 하버드, 다트머스)이 글쓰기 수업에서 대학 생활에 필수적인 말하기 및 구술법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이밖에 기타라고 답한 7명의 응답자 3명은 설문지에 명시된 전공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 ("all disciplines on campus teaching writing," "writing in the majors," "upper-levels come from all departments") 출신 강사진이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글쓰기 과목과 전공과의 연계성에 대해 논한 바 있듯이 교양 글쓰기 과목을 심화하여 이를 각 학생들의 전공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에 비롯된 현상인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강사진의 지위 및 처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기 응답자별로 다양한 답을 제시했다. 이것은

글쓰기 프로그램이 각 대학의 고유한 환경 및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글쓰기 과목 강사진의 구성 비율을 알고자 교수, 시간제 강사(part-time instructors), 전임 강사(full-time instructors), 기타의 항목으로 나누어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비율을 물었다. 우선 25 명의 답변 중 14 개의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나 대학원 학생들의 비율이 교수나 전임 강사의 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전임 강사의 비율이 1%, 나머지 99%는 시간제 강사를 고용한다고 하여 그 차이를 현격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11 개의 대학에서는 교수 및 전임 강사의 비율이 시간제 강사나 대학원 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특히 이 11 개 대학 중 7 개의 대학에서는 교수의 비율이 40%이상이었으며,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의 경우에는 글쓰기 강사진의 80%가 교수로 이루어져 있고, 2%가 전임 강사, 16%가 시간제 강사, 기타가 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수 및 전임 강사의 비율이 높은 경우는 대학 내에 글쓰기 프로그램이나 학과(Composition and Rhetoric)의 교수들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그만큼 성공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응답 중 가장 특이한 경우는 외부 전문 인사를 초청하여 글쓰기를 가르치도록 하는 경우였다. 한 응답자는 자신의 대학에서 변호사를 초청하여 교양 글쓰기를 가르친다고 했다. 글쓰기 강사진의 처우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에 연봉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 경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일반적인 전임 강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교수의 경우 대학별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교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그만큼 그 대학의 글쓰기 프로그램이 잘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교수의 연봉으로 글쓰기 강사진의 처우를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질문은 4만 불 미만, 4-5만 불 사이, 5-6만 불 사이, 6-7만 불 사이, 7만 불 이상으로 나누어진 항목 중에 선택을 하도록 했다. 총 응답자 3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명(54%)이 전임 강사의 연봉이 4만 불 미만이라고 답했다.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더라도, 이는 인문학 분야의 조교수 연봉에 비해 적지만 어느 정도 이에 근접한 액수라 할 수 있다. 지난 2005-2006년에 행해진 한 조사에 의하면 인문학 분야의 조교수 평균연봉은 약 48,600불로 전임 강사에 비해 약 10,000불 높았다(www.cupahr.org). 그리고 4만 불 미만 다음으로는 4-5만 불 사이(33%), 5-6만 불 사이(10%), 6-7만 불 사이(3%)의 순으로 글쓰기 프로그램 전임 강사의 연봉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대학 글쓰기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운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만약 만족스럽지 않다면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피력하도록 했다. 25명의 응답자 중 8명만이 현재 자신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글쓰기 과목과 프로그램이 충분하다고 대답했으며 4명은 충분하긴 하지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리고 네 명 모두 전공 관련된 글쓰기 수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글쓰기 교육 과정을 정비하고 있다. 우리 학과(글쓰기 프로그램이나 학과)에서 정말 필요한 과목들이 제공되었으면 하고 다양한 전공 전반에 걸친 집중 글쓰기 과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We are currently revising our curriculum; I hope we will have the right kind of courses offered from our department. I think we need more writing-intensive courses from across the curriculum."

그렇긴 하나 우리 대학에서는 다양한 전공 전반에 걸쳐서 좀 더 실속 있는 과목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의학 대학 글쓰기 수업같은 것 말이다.

Yes, although we need to develop a more substantial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program here. We could use a course in medical writing.

우리 대학에서는 충분히 많은 글쓰기 과목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전문화된 글쓰기 과목을 제공했으면 한다. 고급 저널리즘이나 음악 글쓰기, 과학 저널리즘, 연구 보고, 연구지원비 신청 작성, 연구 제안서 쓰기 등등을 들 수 있겠다.

Yes, we offer enough opportunities, but we want to offer more of the specialized courses: advanced journalism, writing in music, science journalism, investigative reporting, grant writing, proposal writing, etc.

나머지 13명의 응답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대학 글쓰기 프로그램이 더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확장 필요성은 주로 네 부분으로 수렴된다. 첫 번째는 이수 글쓰기 과목의 수가 늘어나야한다는 지적이다. 즉 13명 중 네 명이 현재 자신들의 학교에서 필수로 하는 글쓰기 과목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전공 분야 글쓰기 과목을 증설해야 한다는 지적으로서 첫 번째 이수 글쓰기 과목의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수 글쓰기 과목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대부분 전공 분야에서 글쓰기 관련 수업을 듣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현재 자신의 대학 글쓰기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도 역시 전공 분야 글쓰기 수업이 부족하다는 데 있었다.

독립된 글쓰기 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전공 분야 과목에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야 한다. Mor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write within their disciplinary courses, not more standalone writing courses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학에서는 좀 더 전공분야별로 특화된 글쓰기 수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이나 과학 전공 학생들에게는 학술비 지원 신청 작성과 연구 제안서 작성과 같은 수업이 필요하다.

No, we need more discipline-specific courses. Also, we need a course in grant and proposal writing for students in education and sciences.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43명의 현 미국 대학 글쓰기 강사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글쓰기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2개 중 하나, 혹은 필수

이외의 과목이더라도 학생들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글쓰기 수업을 개발하여 이를 권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강사진의 경우, Composition and Rhetoric 과 같은 학과가 정립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교수 및 혹은 글쓰기 강좌만을 담당하는 전임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나 대학원생들을 이용하여 교양 글쓰기 강좌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향후 발전 방향으로서 글쓰기 강좌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전공과 연계된 강좌 개발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질적, 양적 확대는 전문 강사 인력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 학계 내에서 실제로 이같은 글쓰기 강좌에서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V. WAC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의 여러 가지 유형과 성공적 사례들

앞서 소개된 사례 조사 및 설문 조사에서 드러나듯, 현재 미국 대학에서는 일반교양 글쓰기 이외에 학생들의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글쓰기 수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4 절에서는 일명 WAC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이라 불리는 전공 통합 글쓰기 과목들의 유형과 성공적인 사례들을 분석한 Anson (2006)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담당 주체가 개인 강사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인지에 따라서 WAC 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글쓰기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 강사가 전공과의 연계 필요성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지도 교수 및 담당 학과의 교수와 접촉하거나 협력하여 일을 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데서 오는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글쓰기 담당 부서와 기타 학과가 공조하는 팀티칭의 형태이다. 라이스대학(Rice University)의 케인 프로젝트(Cain Project)가 그 한 예로서, 글쓰기 담당 강사가 전공을 담당하는 교수와 긴밀히 연계하여 기술 및 글쓰기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로서 오하이오에 있는 마이애미대학(Miami University of Ohio)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 교수들이 포커스 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교과 과정을 개발하기도 한다.

WAC 프로그램이 좀 더 조직화된 경우엔 각 학과별로 자신들 전공의 특징에 맞게 학생들에게 알맞은 필수 글쓰기의 양과 종류를 결정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은 각 학과에서 그 전공의 특성에 따라 어떤 필수 글쓰기를 몇 과목 수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 다음 유형은 단과대 별로 WAC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주립대(Iowa State University)의 농과대학은 모든 과목에서 일정 학점을 기술과 글쓰기에 할당하고 학생들의 경험에 비추어 이수해야 할 기술/글쓰기 학점을 결정했는데, 이후 이 시스템이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농대생들은 그 어느 단과 대학의 학생들보다도 기술과 학술작문을 더 많이 연습할 수 있었다고 한다.

WAC 프로그램이 조금 더 조직화된 경우엔 전체 대학 수준에서 이를 운영한다.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형태의 WAC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수준, 개별 학과, 혹은 개별 단대를 통해 WAC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조금 더 조직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해 마련된 방안이다.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하와이대학(University of Hawaii at Manoa)과 미주리대학(University of Missouri at Columbia)을 들 수 있다. 우선 하와이대학은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WA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 하나로서, 무려 70 개 학과에서 400 개 이상의 집중 작문 과목(Writing-intensive)을 개설하고 있다. 미주리대학 또한 1987 년 이래 현재 250 개 이상의 집중 작문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2 개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수준에서 WAC 을 관리할 경우, 교수진이 경제적, 교육적인 면에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WAC 유형 중에서 대학 규모와 특성 및 WAC 전통 여부에 따라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들의 학교에 알맞은 형태의 독자적인 WAC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킨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위스콘신 주, 밀워키 시에 위치한 알베르노 칼리지(Alverno College in Milwaukee, Wisconsin)는 소규모 칼리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대학과 개인 강사가 조율을 이루어 WAC 프로그램을 개발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 학교는 디지털로 된 포트폴리오 제작(digital portfolio) 및 능력별 교육(ability-based instruction) 등을 통해 모든 수업에서 기술과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수진 연구 개발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Anson, 2006, p. 108). 알베르노 칼리지가 소규모 대학의 성공적인 WAC 프로그램의 본모기를 보여준다면,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같은 경우는 좀 더 규모가 큰 대학들에 맞는 WAC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은 채플 힐에 위치한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밑에 소속된 17 개의 캠퍼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Raleigh 지역에 위치한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은 약 3 만 1 천 명의 학생과 8 천 명의 교수 및 직원이 있는 연구 대학이다. 연간 3 억 2 백 5 십만 달러를 연구에 지출하며 약 70 퍼센트 이상의 교수진이 연구비를 받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약 2 천 5 백 명의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http://www.ncsu.edu/about-nc-state/index.php>).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은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ollege of Design, College of Education, College of Engineering,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ge of Management,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College of Physical and Mathematical Sciences, College of Textiles,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10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규모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은 전 대학을 통하여 글쓰기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도 각 학과별로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글쓰기를 규정하고 또 이에 준하여 평가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대학 종교학과의 경우 졸업 시 학생들의 기본적인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졸업 시에 종교학 전공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1. 다양한 종교적 시각에 대한 인식과 이해. 자세히 말하면, 첫째, 학생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적 믿음과 관행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확하게 잘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전통에서 드러나는 종교와 문화의 연관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다음 항목은 글쓰기/말하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능력으로서, 종교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종교적 전통의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 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종교에 관한 글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에 관해서 효과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전제를 세우고 이를 적절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로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한다.

Upon graduation, Religious Studies majors should demonstrate:

1. An awareness of and appreciation for the diversity of religious perspectives.

Specifically, students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that they:

- a. are familiar with the variety of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in the world and can describe them fairly and accurately;
- b. are familiar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religion and culture in various traditions.

The second outcome references writing and speaking abilities directly:

2. An ability to think and write critically about religion.

Specifically, students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that they:

- a. can describe and analyze elements of religious traditions;
- b. they can assess academic writings on religion;
- c. they can make an effective and valid argument about religion, one that successfully establishes a premise and supports the premise with appropriate and persuasive evidence (Campus Writing and Speaking Program).

(Anson, 2006, p. 109)

종교학과의 경우 이와 같은 내부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구술 및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교수 회의에서 이를 함께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술과 글쓰기를 더 긴밀히 결합시키는 교과 과정의 개발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 이처럼 학과별로 성공적인 WAC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각 학과의 노력뿐만 아니라 North Carolina State's Campus Writing and Speaking Program 과 같은 조직에서의 다각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양한 각 과의 특성상 일관된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North Carolina State's Campus Writing and Speaking Program 에서 그와 같은 다양성을 조율하면서 통합적인 글쓰기 교육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그 어려움이 효율적으로 해결되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워크숍이나 강연, 상담, 세미나 등을 통하여 글쓰기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Faculty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Freshman Writing Program, the Division of Undergraduate Academic Programs, Campus Writing and Speaking Tutorial Services 이나 도서관과 같은 기관들도 글쓰기 교육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은 1950년대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결과를 위주에서 탈피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집단에서 이루어진 글쓰기인지, 즉 글쓰기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context)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각 대학들은 이렇게 제고된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글쓰기를 더욱 개발, 확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글 쓰는 사람이 소속된 집단을 중요시하는 학계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글쓰기 교육이 학생들의 전공 분야를 이해하고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각 대학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글쓰기와 전공 수업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문헌 조사 결과 그 다양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강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처럼 학과 중심으로, 아이오와 주립대의 농대와 같이 단과 대학을 중심으로, 또는 하와이대학이나 미주리대학에서 보듯 대학 전체를 통해 전공과 연계된 글쓰기 교육이 총괄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 중 가장 효과적인 WAC 프로그램의 형태는 무엇일까? 사실 이를 일괄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거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각 대학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슷한 규모와 특성의 대학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덧붙여 위에서 소개한 대학들의 경우, WAC 을 관리하는 주체가 개인이든, 학과든, 대학이든 간에, 글쓰기센터(writing center)나 글쓰기 프로그램(composition and rhetoric program)과 같은 전문 글쓰기 연구 기관을 통해 글쓰기 교육을 다각적으로 보조,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V. 결 론: 한국 대학교 글쓰기 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미국 주요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이 대학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결과를 도출했다.

1. 교육목표:

미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그 목표에 있어 기존의 간략한 5 문단 쓰기 훈련을 탈피하여 학문적 분석과 연구에 기반한 글쓰기를 강조하면서 '학술작문'에 해당하는 글쓰기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2. 필수과목의 비중:

글쓰기 필수 과목은 대다수의 대학에서 2 과목 이상이며, 3 과목 이상인 경우도 다수이다.

3. 전공 글쓰기의 강조:

일반 교양과목으로서의 글쓰기 과목 이외에 전공 글쓰기 과목을 강조하면서 전공 글쓰기 과목도 필수로 개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English 101/100' 이외에 다양한 작문 강좌들이 개설되고 있다. 또 조사 대상 학교 대부분이 전공 글쓰기에 해당 전공학과와 전임교수들이 많이 참여한다.

4. 말하기/구술발표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

충실한 글쓰기 교육이라는 기반 위에서 말하기/구술발표 능력의 배양,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때의 의사소통 능력 훈련도 비중이 강화되는 경향이다. 많은 대학에서 철저한 글쓰기 훈련의 일환으로서 글쓰기 과목 안에서 말하기/구술발표를 포함시켜 훈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두 과목이 필수로 부과되는 학교의 경우 첫 번째 필수과목에서의 철저한 글쓰기 훈련을 바탕으로 두 번째 필수 과목에서 구술발표 훈련의 비중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

5. 교수진의 구성과 처우:

강사진 구성과 처우는 학교별로 다양하지만, 글쓰기 학과(Composition and Rhetoric) 출신의 전임강사나 교수의 비율이 높은 경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다.

6. 보조 교육인력의 훈련:

글쓰기 교육에 참여하는 수업조교/상담조교 등 보조 교육인력에 대한 훈련의 개선과 강화가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도 유지를 위해 중시되고 있다.

7. 글쓰기 교육을 위한 조직과 투자:

글쓰기 능력의 효과적 향상을 위해서 글쓰기 프로그램이나 학과, 글쓰기센터 같은 전담 조직에 대한 대학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시하며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이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글쓰기/말하기 프로그램(North Carolina State's Campus Writing and Speaking Program)의 성공 사례는 전대학적인 글쓰기 교육 관리를 시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유사한 규모인 대학교들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일곱 가지 연구 결과가 한국 대학교의 글쓰기 교육에 대해 지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 한국 대학들의 글쓰기 교육은 영어 글쓰기 교육만 하면 되는 미국 대학과 달리 우리말/영어 글쓰기 교육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기존의 부족한 인력과 재정에 더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적절한 교육 정책을 통해 우리말/영어 글쓰기의 이중 과제가 부담이 아닌 상호 상승작용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대학마다 글쓰기 교육의 담당 주체를 정비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글쓰기 과목을 단계화하여 수준별로 설정하고 글쓰기 과목을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미국 대학들에서 말하기가 글쓰기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면서 글쓰기 과목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듯, 현재 일부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는 말하기 수업들이 글쓰기 수업에 기반을 두고 이와 밀접한 연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작업을 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글쓰기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전문적인 인적 자원 없이 글쓰기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Anson, C. M. (2006). Assessing writing in cross-curricular programs: Determining the locus of the activity. *Assessing Writing* 11, 100–112.

Dartmouth College. (2008). Institute for writing and rhetoric. Retrieved December 1, 2008, from <http://www.dartmouth.edu/~writing/>

Harvard College. (2008). Harvard college: writing program. Retrieved November 10, 2008, from <http://sites.harvard.edu/icb/icb.do?keyword=k2410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0). MIT program in writing and humanistic studies. Retrieved January 23, 2009, from <http://www.mit.edu/~humanistic/>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0).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at MIT. Retrieved January 23, 2009, from <http://web.mit.edu/wac/>

Miller, T. P. (1997). *The formation of College English*.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Nystrand, M. (2003). Janet Emig, Frank Smith, and the new discourse about writing and reading, or how writing and reading came to be cognitive process in 1971. In M. Nystrand, & J. Duffy (Eds.), *Towards a rhetoric of everyday life: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writing, text, and discourse*.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Nystrand, M., Greene, S., & Wiemelt, J. (1993). Where did composition studies come from? *Written Communication*, 10, 267–333.

Princeton University. (n.d.). Princeton writing program. Retrieved January 23, 2009, from <http://web.princeton.edu/sites/writing/#>

Stanford University. (2008). 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 Retrieved November 10, 2008, from <http://pwr.stanford.edu/>

Strickland, D. (2001). Taking Dictation: The Emergence of Writing Programs and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omposition Teaching Author(s). *College English*, 63 (4), 457–479.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5). College writing programs. Retrieved January 23, 2009, from <http://www-writing.berkeley.edu/>

University of Michigan. (2009). Sweetland writing center. Retrieved January 23, 2009, from <http://www.lsa.umich.edu/swc/>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9).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Retrieved January 23, 2009, <http://mendota.english.wisc.edu/~WAC/>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있습니다.